

<우산 없는 사람들>

권혜성

아티스트 토크 녹취록

2024.04.17

17:00 ~ 18:00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팟캐스트 링크

podbbang.com/channels/14065/episodes/24914711

김인선 :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김인선입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은 권혜성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혜성 : 안녕하세요. 권혜성입니다.

김인선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현재 권혜성 작가의 개인전 <우산 없는 사람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 대해서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권혜성 작가님은 1985년생의 여성 작가이십니다. 전시 보러 오시는 분들이 나이와 성별을 궁금해하셨어요. '작품 속 선의 힘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 작가세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나이를 말씀드리면 '젊은 작가시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작품에서 연륜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를 나오셨고요. 최근 2023년에는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경기도 DMZ 일대에서 열린 <DMZ 전시: 체크 포인트>에 참여하셨습니다. 캠프 그리브스의 연강 갤러리에서 먹과 종이로 된 큰 작품을 선보이셨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한국화와 동양화와> 순회전에 참여하셨는데요. 일본인 기획자가 진행하셨고, 도쿄와 교토 그리고 서울의 중간지점2에서 열렸어요. 한국화와 동양화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얘기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간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2015년 <short story long - 장마>라고 하는 젊은 기획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젊은 기획자가 선정한 작가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때는 드로잉 작품으로만 참여하셨고, 2020년도에 <Back Beat!>라는 첫 개인전을 저희 공간에서 하셨어요.

권혜성 : <장마>에서 엄유정 작가님과 서로 주고받는 형식의 드로잉으로 같이 전시했었죠.

김인선: '장마'에 관한 일기 같은 방식이었죠. 한쪽 벽에 많은 드로잉들이 벽지처럼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24년에 거의 4년 만에 저희와 개인전을 다시 가지게 됐어요. 그동안 작가님의 작업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처음으로 유화 작업을 선보이셨습니다. 오랜만에 개인전이기도 하고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전시인데, 이 전시를 통해서 특별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권혜성 : 제가 주로 면보다는 선으로 작업하는게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먹물이나 콘테로 작업했을 때와 유화로 작업했을 때, 선의 느낌 혹은 재료에 중첩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김인선 : 그때의 재료들은 단색 재료인 먹과 종이 등이었잖아요. 단색을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과 유화로 보여줬을 때, 어떤 것이 다를까 궁금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리는 방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권혜성 :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했지만, 다뤄지는 재료 자체의 특징은 너무 달랐어요.

김인선 :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권혜성 : 먹물이나 콘테, 목탄으로 작업했을 때는 아무래도 같은 검은색이었고, 특히 먹물은 제가 동양의 먹물의 농담 이런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물을 타지 않은 본연의 검은색으로 그렸기 때문에 선들이 겹쳐도 레이어가 두껍게 쌓인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었던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었는데, 유화는 아무래도 색도 다양하게 쓰이고 같은 색을 써도 물감의 두께에 대한 느낌들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김인선 : 저희 바로 뒤에 보시는 이 작업 <풀밭 연구3, Oil on canvas, 193.9x130.3cm, 2024>도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밀도감이 엄청나요. 많은 선들이 계속 쌓이면서 작업이 완성됐고, 총총이 쌓인 선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깊이감이 있고요. 그래서 먹처럼 한 색으로 종이에 작업했을 때보다 공간 자체가 더 드러나는 느낌도 있어요. 다양한 색감을 보는 느낌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4년 전 2020년도 윌링앤딜링에서 했던 <Back Beat!>에서 주로 다뤘던 게 '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사주 오행 등에 대한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물로 대표되는 색이 검은색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번 전시는 풀밭을 많이 그리기도 했지만 중간에 푸른 계열이 보여주는 게 하늘 같기도 하고 물 같기도 해요. 그런 물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도 한 데다가 전시 제목도 <우산 없는 사람들>이죠. 전시 오픈 날도 비가 왔는데, 갑자기 오는 비에 사람들이 우산 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물'이라는 소재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 변형하든 권혜성의 전시에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은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졌을까요? 아니면 같은 맥락 안에서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했을까요?

권혜성 :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김인선 : 그때 강에서 헤엄치는 사람들도 그렸었고, 비의 느낌처럼 선을 다루신 적도 있잖아요.

권혜성 : 네. 바람이나 비처럼...

김인선 : 바람, 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순간을 캐치할 수 없는 것들을 더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풀이라는 우리가 실제로 거리, 산속, 공원을 갔을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취해지거

나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게 여기서는 덜어지기도 하면서 대상성에 대한 변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러본 질문이었어요.

권혜성 : 공통된 맥락으로 살아있는 움직임에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그려진 풀밭은 땅에서 올라온 풀을 그린 거예요. 예를 들면 정물로서의 풀 혹은 꽃 이렇게 생명이 다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전에 그랬던 물이나 바람처럼 어떤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땅에서 올라와 살고 있는 풀이 저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서도 그런 에너지를 느꼈고요.

김인선 : 전시 제목이 <우산 없는 사람들>인데, 막상 와보면 사람을 그린 작업은 하나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권혜성 : 저는 풀밭에 난 풀들을 보면서 풀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산 없는 사람들> 제목의 시작점은 제가 제주도에서 친구들이랑 비가 올 때 우산 없이 걸었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 경험을 발단으로 작업을 시작해보자 했었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풀밭을 봤을 때, '재네들도 우산 없이 비를 맞고, 그 비는 재네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양분이지' 그게 마치 저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비 자체가 우산 없는 사람들 같아 보이기도 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어보고 싶었습니다.

김인선 : 본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풀이라든지 비의 모습, 바람의 모습 등의 표현으로서 선 자체를 다룬다는 점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유화를 다루던 먹을 다루던 여전하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밀도감'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유화의 색을 통해서 보여주는 밀도감과 먹을 통해서 보여주는 밀도감하고 어떤 게 더 밀도가 깊다 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동양화 재료나 서양화 재료나 밀도감을 다루는 태도는 항상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종이에 그랬던 예전 작업에 대해서 상기해보면, 물이 흐르는 강에서 사람이 헤엄치는 장면을 보면 '이게 강이다'라고 하는 내용적인 밀도감은 있겠지만, 형식에서 보여지는 건 선적이고 평면적인 느낌이 있었고요. 그러다가도 검은 먹을 계속 반복하고 겹치면서 화면 자체가 새까맣게 돼가는 와중에도 선이 보이면서 밀도감이 드러났고, 그러다가 이번 전시에서 유화 물감의 다양한 색을 쌓으면서 이 형식에서의 밀도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재료는 이게 좀 더 용이하더라.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권혜성 : 아니요. 유화라는 재료, 먹물이나 다른 재료의 특성을 알아가는 것 자체만 어려웠고, 그림 그리는 방식은 똑같았어요.

김인선 : 공통된 그리는 방식 안에서, 재료마다 발생하는 효과들을 보는게 재미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권혜성 : 유화는 아무래도 색을 쓰고, 재료 특성상 두껍게 칠하면 뒤에 투명하게 보이거나 하는 게 없으니까 쌓는 행위나 유희적 느낌이 더 재미있게 다가 왔어요. 그래서 유화 물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논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김인선 : 그렇기도 하겠네요. 종이에 먹은 실수했을 때 덧칠해서 상쇄하는 게 힘들겠네요.

권혜성 : 그렇게 되면 버리든지 포장지로 쓰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유화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김인선 : 왜 늘 대상은 자연일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사람이 저기 존재하고 있긴 한데, 사람 자체도 풀처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서 표현된 것들이 항상 자연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혜성 :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20년도부터인데, 그전까지는 방향했던 시간들이 길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태어나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들에 빠져 살았어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자연에 놓여져 있는 재네들은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씨를 뿌리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보다 본능적으로 더 사람처럼 다가왔었어요.

김인선 : 철학적으로 고민하며 살았던 기간이 있었나 보네요.

권혜성 :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김인선 : 04학번이죠? 그럼 졸업한 지 좀 됐는데, 전시 경력을 보면 개인전은 이번이 세 번째 거든요. 또래 작가보다 전시를 많이 안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전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전에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미술을 그만둬야지'라는 생각도 해보셨어요?

권혜성 : 원래는 작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김인선 : 그러면 미대를 졸업하고 무엇을 하고 싶었나요?

권혜성 :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미대까지 나왔지만,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른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시도해 보다보니 긴 시간이 흘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내가 그림 말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김인선 : 윌링앤딜링에서 처음 개인전을 한 2020년 직전에 제주도에서 1년인가 계셨잖아요. 그때는 그림을 안 그리셨어요?

권혜성 : 네. 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무를 하나 심었을 때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애는 계속 남아서 자기 생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조경, 디자인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던 차에 우연하게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좋아져서 다시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김인선 : 권혜성 작가의 조경 작업은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림 같이 흐드러진 조경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궁금하네요. 본격적으로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다 보니 그래도 그림이 제일 재미있었던 거 아니에요?

권혜성 : 작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해결 혹은 해소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김인선 : 사람에 대한 고민이나 나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그림으로 해결해 나갈 수도 있겠다, 대상이 되는 것들이 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그게 풀로서 상징이 되면서 연결이 되는 듯 하네요. 그래서 정물화는 전혀 못 봤던 것 같아요. 정물 그려본 적 있으세요?

권혜성 : 대학생 때 그린 거 말고는 없고요.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는 공기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계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김인선 : 생명이 있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와중에 상상력을 많이 작동시킨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 작업 시리즈를 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줬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이었는데요. 풀밭이 무성하게 있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 안의 풍경에 부분 부분, 여기를 그린 거고 이 작업은 이쪽을 그린 거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었죠. '바람이 불 때, 비가 올 때 이런 모습일 거다', '꽃이 피면 이렇고요' 등의 설명도 덧붙이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종의 환경에 의해서 이런 게 어떤 색깔, 형태를 가질 거다라고 스스로 상상한 화면이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의 이런 방식이 풀 자체를 묘사하거나 그걸 보고 그대로 실시간 반영해서 그렸다 라는 느낌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상하고 종합해 보고 거기에서 본인에게 떠오르는 어떤 장면을 아주 빠른 시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그려내는 모습이 상상이 되거든요. 더불어 2021년에 작가님이 아트하우스 연청에서 단체전 <어라운드, 어라운드>를 할 때 제가 드로잉 작업을 하나 구입했는데, 가는 선으로 그린 돼지 모양 같았어요.

권혜성 : 돼지 맞아요. 물의 요정인 돼지.

김인선 : 앗! 돼지가 맞군요. 아무튼 그 당시에 '이게 뭐예요? 돼지예요?' 그랬더니 '물의 요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요.

권혜성 : 돼지인데 물의 요정이에요. 그냥 만들어봤어요. 귀엽잖아요.

김인선 : 사람들이 이 드로잉을 다들 좋아하세요.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 보시면 걸려 있습니다. '물의 요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상상이잖아요. 그림의 구도상 돼지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물에서 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상력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감지하고 늘 봐왔던 대상인 건데, 어떤 종류의 상상력이 덧붙여지는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권혜성 : 어릴 때부터 혼자 상상하는 걸 그리는 게 취미였어요. 뭔가를 보면 얘기를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요. 공부 안 하고 맨날 교과서 귀퉁이에 그림 그리는 애들 있잖아요. 이상한 생각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습관이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생각해요. 혼자 그러고 있으면 재미있어요.

김인선 : 2020년 개인전 때 그렸던 바다나 강 풍경, 비 오는 풍경 또 지금 보여주고 있는 풀밭의 풍경 이런 것들이 상상으로 나온 결과물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찍은 사진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림 그릴 때 사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역할 외에 또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권혜성 : 사진은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자료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선 : 그때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 정도군요.

권혜성 :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몸에 와 닿았던 바람의 느낌 이라던가. 그때 풀들이 나한테 어떻게

보였었지 등등 이요.

김인선 : 사진으로 실제 풍경을 봤을 때, 감각들에 방해가 되지는 않나요?

권혜성 : 별로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방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김인선 : 작업실에서 종이에 먹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잖아요. 사진말고 참고로 하는 것 중에 옛날 동양화 이미지들도 있다며 보여주셨어요. 그런 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어떤 걸 보세요?

권혜성 : 주로 김홍도의 작업을 많이 보고요. 그분의 필력, 그 선들을 보면 이 선을 그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선을 그었을까 아니면 바람에 흩날리는 옷의 필력이는 부분을 봤을 때, '잘 그렸다.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보고 싶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를 보고요. 동양화에서는 빈 공간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서양화에서는 하늘을 파란색으로 칠하거나 하는데, 동양화에서는 그런 부분을 무(無)의 공간으로 생략해서 남겨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빈 공간을 보면 바람이 통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게는 서양화보다 동양화의 수묵화나 풍경화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온다고 해야 될까요?

김인선 : 그리고 비 오는 장면 같은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들도 있어요. 저도 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 느낌이 나는 화면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동양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권혜성 : 바다 그림, 물결 표현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아요.

김인선 : 비바람이 거칠게 불 때도요?

권혜성 : 바람이 불 때의 바람을 저처럼 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옷이 날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인물 사이에 있는 공간에 '뭔가 지나가는구나' 라고 상상을 할 수 있죠.

김인선 : 네. 동양화를 참고하기 때문에 유화를 다룰 때, 본인의 재료에 따라서 다르게 다루는 방식으로 변형을 하거나 선이라고 하는 요소를 다루는 방식이 나름대로 권혜성 작가만의 특징으로 만들 수 있는 경지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선의 필력이 좋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신만의 호흡이 있거나 또는 그 그림을 대하는 본인만의 태도 또는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림 그리는 과정을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권혜성 : 보통 점심 쯤에 작업실에 출근해요.

김인선 : 언제부터 그리는지, 시간이 중요한가 봐요?

권혜성 :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해요. 작업실에 도착해서 청소를 하고, 전날 그렸던 그림이라든가 혹은 그려야 되는 대상의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요. 어쨌지, 저쨌지 이러면서 오늘 뭐 그리지 생각하다가 이렇게 해볼까 하고 시작하죠. 보통의 작가분들은 아이디어 스케치라든가 미리 색깔이나 구도

를 어떻게 할지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선으로 구성해요. 짝짝 그리고 바로 즉흥적으로 캔버스 혹은 종이에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하면서 계속 생각해요. 첫 번째 곳은 선이 중요한 느낌이에요.

김인선 : 그러면 앉아서 하루 만에 한 화면을 다 채워야 될 때도 있겠네요.

권혜성 : 네. 보통 먹이나 콘테로 작업할 때는 하루 만에 끝내고, 유화는 아무래도 제가 다르게 접근했으니까 마르는 시간이나 이런 걸 포함하면 몇 일정도 걸려요. 그래서 작업실에 한 10시간 있다고 하면 그림 그리는 시간이 2시간 정도로 집중해서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김인선 : 평소에 작가님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나갈까?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손목은 괜찮으세요? 힘을 줘서 그리게 되지 않나요?

권혜성 : 아니요. 힘이 오히려 빠지던데요.

김인선 : 엄유정 작가님의 경우, 아티스트 토크할 때 들어보니까 화면에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서 손목에 힘을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목도 아프고 붓도 망가지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반대되는 방식이네요.

권혜성 :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동양화 붓을 쓰면 손목에 힘을 주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붓을 누르면 선이 딱딱해 진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무술 영화에서 보면 칼은 유연성과 에너지 조절을 잘 해야 하거든요. 영화 와호장룡(2000)에서 장쑤이의 서예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캐릭터는 무림의 고수라는 걸 그 장면으로 알게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김인선 : 보통 작가들이 작업하면서 손이나 어깨가 아픈 증상들이 있잖아요. 작가님은 신체적으로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작업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

권혜성 : 없어요. 길게 그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김인선 : 어제 잠깐 바느질 작업을 하시는 윤가림 작가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엇이든 반복해서 하면 그 부분이 고장이 나게 돼 있더라'하면서 본인의 작업 과정에 있어서의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작가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작가님의 작업처럼 달관한 느낌이 있어서 재미있네요. 저는 작가님들이 아프다 하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걸 평생 해야 될 텐데, 벌써 아프면 어떡하지 싫어요.

작가님의 작업에는 선호하는 색, 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검은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느낌의 톤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유화 작업을 보면 다양한 톤들이 섞여 있는 장면들이 많이 보여요. 작가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톤이 있으세요? 색감, 느낌 이런 거요.

권혜성 : 제외하는 색들은 있어요. 핑크색처럼 화사한 거요.

김인선 : 빨간색이 있지만 살짝 보이는 느낌으로 있고요. 꽃이 피어 있는 장면도 있는데, 꽃의 느낌도 부드럽고 흰색에 가까운 노란빛 같은 느낌이에요. 붉은 톤이긴 한데, 갈색 느낌으로 톤 조절을 한 것 같아요. 원색 계열의 화사한 톤들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권혜성 : 이 색깔을 딱 선호하는 건 아니었고요. 유화를 시작한 게 이번이 거의 첫 작업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색깔들을 썼어요. 색깔 쓰는 것도 미리 정한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이 그림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서 나온 색들이에요.

김인선 : 그래서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 이 작가 자체가 어떤 사람이겠다 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보여야지'라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그 자리에서 내키는 대로 표현하면서 완성을 해 나가니까 작가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림이 너무 권혜성 작가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작가의 성향 자체가 고스란히 반영된 느낌이 강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자체를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솔직하고 순수한 장면인지 다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재료를 유화로 바꾸고 다루면서 작업이 즐거웠다고 하셨는데, 그런 감정들도 여기서 많이 드러난 것 같아서 전시를 하는 입장에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가 노트를 보면 작가님이 하나의 풍경 안에서 이것 저것을 떼어내고 화면을 구성해서 하나씩 그려 나가듯이 그때 느꼈던 10가지의 감정들을 정리해서 주셨잖아요. 물론 작업 노트라는 것이 작가의 마음 작업을 반영하기도 하고 작가의 당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많이 겹쳐지는 부분들을 보여주곤 하는데, 이 글의 형식 자체가 작가님, 그림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풍경의 기분을 상상해 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말도 재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풍경의 기분이라는 게 뭘까요? 저 풍경은 슬프겠다, 즐겁겠다 이런 건가요?

권혜성 : 저를 많이 반영한 거긴 한데요.

김인선 : 아까 사람의 삶보다는 자연이 뿌러지고 태어나서 환경에 맞춰 살아가다가 죽고 또 다시 생명이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흥미롭다고 하셨잖아요. '저 씨앗은 어디서 날아왔을까, 그저 본능대로 자랄 뿐이겠다'라고 하는 문장을 보고 '세상이 참 단조롭고 허무하구나' 식으로 생각했을까 하다가 얘기를 들으니 경이로운 마음으로 이 문장을 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를 맞고 풀을 보면 우산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도 초반에 얘기했듯이 사람과 풀 이런 것들을 동일시하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서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풀들의 고군분투, 생명력 이것도 하나의 환경으로 순응하거나 살아가는 이야기 같은 거겠조?

권혜성 : 제가 작가 노트를 짧게 쓰는 이유가 머릿속에 생각들이 파편처럼 얽혀 있어서, 애를 하나씩 꼬집어내다 보니까 짧아 지더라고요. 그리고 긴 글을 잘 못쓰는 편이기도 하고요. 짧게 쓰거나 아니면 시의 형식을 빌려와 쓰고 있어요.

김인선 : 일기 같기도 하고요. '요가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중간에 '매번 같은 동작이 제각각 다르게 다가온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이 선들도 계속 반복해서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그어 나갔을 텐데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요가를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는, 그러니까 같은 걸 반복하는 느낌이지만 다르게 표현이 되는 매번 다른 모습에 대한 소회 같은 것이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권혜성 : 제가 운동을 진짜 안 하다가 이제는 살아야겠다 싶어서 요가를 시작했는데, 요가의 아쉬탕가 (Ashtanga)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같은 동작을 거의 1시간 동안 반복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죽겠다가 하다 보니까 그날의 컨디션이나 기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깊게 다가올 때도 있고 혹은 너무 아프고 힘들게 다가오다가도 희열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반복된 동작에서 오는 느낌들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림도 마찬가지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김인선 : 작가가 참 다른 것이 보통 그런 운동하면 오늘은 몇 kg나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배에 힘을 많이 줬으니 뱃살이 좀 나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철학적으로 작업을 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어깨에 힘을 빼라는 얘기를 듣고 치료받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몸을 긴장시키고 몸을 굳게 만들고 하는 거는 작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인가요?

권혜성 : 작업할 때는 오히려 풀어내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평소에는 아무래도 환경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어서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턱에...

김인선 : 턱에 힘이 들어가요?

권혜성 : 입을 양 다무는 습관들이 있어요.

김인선 : 작가님을 보면 온몸에 힘을 빼고 다니시는 분처럼 보이거든요. 세상 긴장하는 거 없이 편안한 느낌으로요. 그런데 내면에서는 그러고 계셨군요.

권혜성 : 보통은 저한테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을 하고 걸러서 얘기하거나 표현을 안 해버리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김인선 : 작가님하고 친하신 분들은 대화를 너무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작가님 엄청 재밌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만나봐도 감정에 크게 동요하는 것도 없고 자극을 받았다고 해서 화들짝하거나 요란을 떨거나 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게 뭐든지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도 얘기가 나왔는데 역도는 어디서 보신 거 얘기예요?

권혜성 : 아시안 올림픽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역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성 선수분이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힘이 없어서 무거운 것을 들려면 양손을 번갈아가면서 든다거나 하는데, 100kg이 넘는 것들을 들어올릴 때, 선수 얼굴의 표정이라던가 몸의 자세, 이런 게 거대한 나무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김인선 :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의 힘이 발끝부터 손끝까지 관통하는 것만 같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 같기도 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직선, 수직으로 짝 뻗는 단단한 힘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홍도의 균선도를 감상한다' 김홍도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쪽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향후 계획, 이런 재료나 대상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많으시겠지만, 새롭게 관심이 생긴 게 있는지 궁금해요.

권혜성 : 이제는 인간 세상에 대해서 작업하려 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점 들에서 답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 주변의 일들 이라든가 사회의 모습들 이런 걸 주제 삼아서 그리고 싶고요. 재료는 유화, 수
채화 기타 등등 다양하게 해서 작업 하려고요.

김인선 : 여러 가지 재료를 계속 실험을 해보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화도 본격적으로 그리신다고
하니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먹과 종이 위 작업들도 꾸준히 볼 수 있
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